



박 창 근

〈본회고문·환경교육회 회장〉

미국의 환경보호 12

〈1〉

미국사람들의 자연보호사상은 단순한 생태계 보호의 차원을 넘어 국토보존이라는 궁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나라를 우리가 보호하고 가꾼다는 신념이 대단합니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이런 의식으로 미래의 긴 역사를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5천년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 역사를 이어온 국토보존의 개념은 희박합니다.

더 늦기전에 나라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연을 보호해야겠습니다.

〈2〉

미국의 서부는 광활한 사막지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버려져있는 황무지같이 보입니다만, 그 속에는 온갖 자원들이 가득히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땅만 파면, 석유와 철 그리고 구리와 은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세대가 써야 할 자원이고, 지금은 모자라는 자원을 수입해 쓸 정도로 보관의식이 철저합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자원도 없으면서,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와 현재만을 위해 낭비하지는 않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3〉

보통, 공원의 잔디밭에는 들어가 앉거나 놀이나 휴식에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공원의 잔디는 하나의 편익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공원잔디는 훌륭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용이 잔디를 보호하는 측면이어서 가능한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잔디를 못살게 굴면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공연히 잔디를 쥐어 뜯거나, 꼬챙이 같은 것으로 흙을 파헤치는 등, 잔디 이용의 자세부터 바로 배워야 하겠습니다.

〈4〉

미국의 주택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자기네집 마당이나 아파트앞 길가에 자질구레한 살림도구, 헌옷, 헌책을 펴놓고 파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모두 자신이 쓰던 물건으로 필요없게 된 것을 내다가 파는 것으로, 이를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없게 된 물건이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싼값에 판다는 도음의 뜻도 포함되어 있어, 자못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의 지름길은 모든 물건을 아끼고, 아끼는데서 시작합니다.

〈5〉

미국에서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이머가 붙은 선풍기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0년대 쓰던 그런 단순한 선풍기만을 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T.V나 기타 가전제품도 극히 단순한 것만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물건의 실용면만 따지지 복잡하게 많은 조건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물건은 너무 외관과 조작방법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볼트 하나를 만드는데도 많은 기름을 써야 하고, 폐수를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용적인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아쉽습니다.

〈6〉

공동생활의 개념이 철저한 미국에서는 물건쓰기까지도 공동의 이익을 중요시 합니다.

예를들어, 전기 청소기의 경우 한 아파트의 몇집에서 공동으로 구입해, 서로 청소하는 날을 지정해 돌려가면서 쓰고, 어느 동네에나 꼭 있는 공동 세탁소가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집집마다 전기 청소기나 세탁기를 살 형편이 어려워서 공동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구입해 쓸수 있는 물건은 되도록 공동으로 쓰는 생활의 합리화가 몸에 밴 탓입니다.

우리도 지나치게 자신의 것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함께 쓰는 생활의 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California사막을 배경으로 서 있는 필자, 바로뒤 철책이 보인다. 일반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7〉

흔히, 미국을 부자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값비싸게 사서 쓰고,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 먹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사람들의 생활은 매우 검소하고 소박합니다.

옷은 편리한대로 아무렇게나 입고, 음식점에서의 의식은 1년에 서너번으로 꼭 필요한 일 이외에는 거의 집에서가 아니면 간단한 샌드위치나 햄버거로 해결하는 실용주의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남의 눈을 의식해 좋은 옷을 입고, 값비싼 요리를 대접해야되는 줄 아는 우리의 의식을 바로 잡아야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공해는 대량소비에 따른 대량생산으로 기인합니다.

따라서, 각종 공해를 줄이는 지름길은 소비절약에 따른 자원 절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부자로 사는 미국사람들은 절약이 몸에 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어도, 음식이 남으면 거의 남은 음식을 따로 싸서 집에 갖고 갑니다. 그리고, 옷 하나를 살때도 한 계절용이기 보다는 사계절을 두루 입을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말하자면, 실용위주로 살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 그것이 환경보호의 1차적인 시민의식이고, 지름길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9>

프랑스 주부의 알뜰 쇼핑 계획은 소문나 있습니다. 미국의 주부 또한 살림에 알뜰하기는 세계적입니다. 특히, 합리적인 미국 주부들은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할인 쿠폰을 모았다가, 쇼핑때는 그 쿠폰에 의한 물건만을 사는 것이 철저히 몸에 배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물건도 되도록 특별세일 기간에만 사는 등, 과시적인 소비나 충동구매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할인쿠폰제를 실시해 규모있는 소비생활로,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해야겠습니다.

<10>

외국을 많이 여행한 사람들은, 우리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합니다. 특히, 서울의 근교에 기막힌 산과 들을 갖고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의 대부분 도시들은 평지위에 세워진 도시로,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라스베이거스」도 사막위에 우뚝 선 도시로, 도시와 자연의 경관은 아예 없습니다. 그에 비해, 도심 한가운데 남산과 한강이 자리잡고있는 우리의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수도입니다. 이 수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정성으로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11>

미국사람들의 애국심은 유별납니다. 특히, 국기에 대한 사랑은 광적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데, 가정집 식탁위에도 작은 성조기를 꽂아놓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거대한 미국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엄청난 산업인데도 공해가 적은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나라를 사랑하기때문에 그 나라를 좀 먹는 해로운 일은 스스로 피해 환경이 잘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라를 사랑하듯이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12>

미국은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보호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주는 행동을 제일 큰 잘못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나 개인의 것이기 앞서, 우리 모두의 것으로 공공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 공공의 자산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것은 단순한 절도나 강도행위보다 더 큰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거대한 미국이 자연을 잘 유지하고, 환경을 잘 보호하는 까닭도 이런 공공의 이익 존중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1988. 7. 25.) New York에서